

항·포구 차량 추락 '반복'... 안전장치 '허술'

13~14일 서귀포항과 도두항에서 잇따라 추락사고 발생 운전자 부주의 외 안전펜스 등 시설 미비도 사고 원인 "항포구 기능상 안전펜스 설치·차량 출입 통제 어려워"

제주지역 항·포구에서 차량 추락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조업활동이 이뤄지는 항·포구 특성상 일정 규격 이상의 안전장치 설치가 쉽지 않아 이용자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제주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13분쯤 제주도도두항 북방파제 인근에서 A(29)씨가 몰던 SUV(스포츠퉄리터차량)가 바다로 추락했다.

A씨는 출동한 해경에 의해 육상으로 구조된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현재 사고 차량은 육상으로 인양된 상태며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지난 13일 오전 1시28분쯤엔 서귀포시 서귀포항 6부두 인근 바다에서 B(43)씨가 몰던 SUV가 바다로 추락했다. B씨는 차량이 바다에 빠지자 자력 탈출해 도움을 요청했고, 사고 현장 주변에 있던 낚시객 등의 도움을 받아 구조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해경은 B씨가 차량 운행 중 미끄러져 바다에 빠졌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 차량은 해경에 의해 인양됐다.

항·포구에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는 매년 잇따르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차량 연안 사고는 지난해 2건 발생해 모두 구조됐으며, 2019년 4건(1명 사망), 2018년 1건(1명 사망) 발생했다. 이는 운전자에 의해 차량이 해상으로 돌진한 경우를 제외한 수치다.

차량 추락사고는 대부분 차량이나 사람의 출입이 적고 안전시설물 설치가 미흡한 항·포구 인근에서 발생하고 있다. 운전 미숙, 사이드브레이크 미설정 등 운전자 부주의도 한 원인으로 꼽히지만 항·포구 내 안전시설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도내 대부분의 항·포구엔 차량 추락사고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로 높이 약 10~20cm, 길이 1m 내외의 차량 추락 방지턱이 마련돼 있다. 이날 사고가 발생한 제주도도두항도 마찬가지였으며 위험표지판 등은 찾

아볼 수 없었다.

행정당국은 항·포구에서 어업인들이 배를 타고 조업에 나서거나 수상레저 활동이 주로 이뤄지고 있어, 차량 추락사고를 막을 수 있는 안전펜스를 설치하거나 차량 출입을 통제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항·포구는 어업인들이 물건을 배에 싣거나 나르는 용도인 곳이 대부분이라 차량 출입을 통제하거나 안전펜스를 설치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며 "그러나 사고가 종종 발생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대해기자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된 제주도도두항 방지턱. 방지턱만으로 추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강대해기자

제주시, 작년 상하수도 생활불편 6000건 처리

'기동봉사단' 24시간 대응

제주시 지역에서 지난해 낡은 상하수도관 파손이나 누수와 관련한 생활불편처리 건수가 6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상하수도 민원에 대응하는 24시간 기동봉사단에 지난해 6904건의 상하수도 관련 생활불편을 처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상하수도관의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인한 파손·누수가 증가함에 따라 시는 기동봉사단 "펜안 하우파?"를 운영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50여명으로 구성된 기동봉사단 가운데 전문요원 12명은 현장출동 시스템을 구축해 상하수도 민원 발생

시 즉시 출동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는 검침직원 40여명이 매일 상하수도 검침때 취약가구 110가구의 안부를 확인하고 긴급상황에 처한 가구가 확인되면 복지서비스와 연계하고 있다. 이들 가구의 수도꼭지 등 소규모 상하수도 시설물 무료정비도 추진해 지난해 11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펜안 하우파 기동봉사단이 상하수도 생활불편을 발빠르게 해결하면서 어려운 이웃의 안부도 확인하고 있다"며 "지난해 직원들이 참여하는 사랑나눔 저금통 키우기 후원금으로 이들 가구에 후원물품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도, 퇴행적 인사관행 여전" 공무원노조제주본부 논평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제주특별자치도 상반기 정기인사와 관련해 "퇴행적 관행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제주본부는 14일 논평을 내고 이번 인사와 관련 "과거의 퇴행적 인사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조직의 안정화는 물론 활력을 불어넣지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본부는 "그 어느 때보다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 강화가 중요한 시점인데도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탐장, 과장, 국장들이 6개월 만에 교체되는 부서가 허다해 행정의 공백, 혼란 및 불신만 쌓여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하위직 소수직렬과 행정직의 승진 기회 형평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기에 업무상 중요도나 성과에서 뚜렷한 차이를 구별하기 어려운데도 행정직과 그 외의 직렬간의 승진 기회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차이는 더욱 심해져 가고 있다"며 "소수직렬 공무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동등한 경쟁을 통해서 공직에 첫발을 내딛어 힘찬 미래를 꿈꾸고 열심히 일하며 차별 없는 승진의 기회가 보장될 것이라는 믿음이 조성된다면 원천적으로 부정부패의 싹이 자라지도 않고 공직사회 개혁은 앞 당겨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윤기자

오늘의 날씨와 생활

1월 15일 금요일 음 12월 3일 (10월)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20%	제주 60%	
20%	성산 30%	
20%	고산 60%	
30%	서귀포 30%	

주간예보

내일	흐림	4/5°C
모레	흐리고 눈	2/4°C

전통시장 감시다!!

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
제주시민속오일장	2, 7
한림민속오일장	4, 9
세화민속오일장	5, 10
함덕오일장	1, 6
고성오일장	4, 9

대체로 흐림

대체로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8~11°C, 낮최고기온은 16~17°C로 전망된다. 최근 많은 눈이 내린 중산간 이상에는 밤 사이 기온이 낮아지면서 녹은 눈이 얼어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해돋이 07:38	달뜨기 09:18
해질미 17:49	달짐 19:54
물때	간조 06:07
:	19:00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감기가능지수
관심	보통

설경 절정 한라산 탐방객 '복적'

도,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 예방수칙 당부

설경이 절정에 다다른 한라산이 탐방객들로 복적이고 있다. 특히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 시행이 17일까지 예정돼 있지만, 한라산에는 인파가 몰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14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사전탐방예약제가 적용된 성판악과 관음사의 경우 15일부터 18일까지 예약이 어려운 상황이다. 성판악 코스인 경우는 하루 1000명, 관음사 코스인 경우는 하루 500명으로 입장을 제한하고 있는데, 현재 탐방을 원하는 인원의 신청이 폭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라산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특별방역대책과 제주도 특별방역강화대책에 따라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입산이 금지됐다. 이어 1월 둘째 주 주말에는 폭설로 입산이 통제됐다. 그러나 최근 한라산 등지에 쌓인 눈이 점차 녹으면서 성판악, 관음사의 입산이 가능해졌고 이번 주말 한라산에는 절경을 이룬 설경을 구경하기 위한 탐방객

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한라산 탐방객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등산 시 거리두기 유지 등 방역수칙을 홍보하고 있다.

관리소 관계자는 "탐방로 입구에서부터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유지 등 방역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지만, 등산 과정에서 거리두기 유지는 개인별 등산 속도 차이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엉 사랑으로

2021 태양광 보조사업 설치희망자 예비모집

지금 전화로 신청하십시오!

영업사원 모집

- 태양광 보조사업 영업 경력자 우대
- 태양광발전소(RPS) 영업경력자 우대
-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우대

▶이력서접수: 워크넷 (work.go.kr)

☀️ 단독 주택

- 기존/신축 주택 소유자, 소유예정자
- 설치용량 3kW까지 지원
- '20년 기준 공사비의 50% 지원
- 공동주택 지원가능
- 타운하우스 등 단체설치 특별우대

🏢 상가 건물

- 사무실/식당/펜션/공장/병원/학원
- 설치용량 50kW까지 지원
-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지원사업 적용
- 건물 용도별 맞춤형 컨설팅/설계/시공
- 공사비의 약 50~55% 지원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2019~2020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2020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및 AS전담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www.jeju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